



2026 탄신452주년 의암주논개제전 제19대 의암주논개상 추대자

인적 사항

성 명 김 미 애 (金美愛)
생년월일 1963년생 (만 63세)
거 주 지 서울시 용산구
이 력 1987. 03. 일본 고토대학교 졸업
1991~ 외식업 창업 및 경영
2003~ ㈜엔타스 대표이사

포상기록

- 2012 국제청 조사모범납세자 표창
- 2017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수사업자 표창 및 기항16주년 유공자 표창
납세자의 날 관세청장·인천세관장 표창
- 2019 제15회 납세자의 날 표창
- 2020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산중소·중견브랜드 상생협력 우수업체 표창
- 2021 고용노동부 장관상
- 제24회 상호존중하는 좋은경영대상 올해의 여성경영리더 선정
- 20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 인천공항 일자리기업 우수기업 표창
- 2024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제19대 의암주논개 추대자 김미애 수상자는 35년간 외식기업 엔타스와 매세인을 일하며 한국 식품문화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에 앞장서 여성 경영인이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주도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이 포기한 면세점을 인수하여 실직자 고용을 승계하는 의(義)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사회 나눔 및 문화 후원 성실납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세대 여성 리더를 발굴 지원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후원하는 등 여성 리더십 육성과 양성업계를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이 시대의 여성의 모범적인 롤모델이자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 사람들은 장수지역을 “논개굴(고을)”이라고 하며, 의암 주논개를 “논개님”으로 존칭한다.

1866년 장수 지역에 처음 논개 비를 세운 사람은 정주석 함감이었는데, 비의 정면에는 “혹석의 논개상(정주석명비) (碣石鄭守錫翁主長臺像名碑)”라 하여 논개 님이 장수 태생임을 밝혔으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수를 옛 시장(현 장수리27번지)에 세웠다.

이 비는 일제강점기 고종제 형식에 의해 강제로 부식 매몰될 위기에 처했으나, 장수 사람들이 나서서 부수는 척하면서 인근 땅속에 묻어 두었다. 1945년 광복이 되자마자 이 비를 다시 꺼내어 관주산 자락(장수초등학교 두편)으로 옮겨 세우고 비각도 지었으나, 단청은 하지 못했다.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의 일로 비석에 흠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55년 남산에 의암사를 세우면서 논개사적비를 옮겼고, 1974년 논개사당이 새로 지어지면서 현 위치로 비각을 옮겨 세우게 되었다.

또한 논개 님이 태어난 장계면 주천마을에는 논개가 사용하던 우물과 생가터가 남아있었는데, 1980년 주천초등학교(1988년 폐교)의 고등영 선생님이 논개 일대기를 정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이 터를 성역화 하였다. 이곳에 논개 동상을 세우고 영정을 모시며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오랫동안 장수 지역에서는 논개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자회와 학교, 주민들이 연등제와 연극, 민요 공연, 제례, 논개축제 등을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논개사당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41 ☎ 063-351-4837
논개생가지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558 ☎ 063-352-2550



제452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기념 논개상 추대식

[전 야 제] 2026. 10. 13. (화) 17:00 /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
[제례봉행] 2026. 10. 14. (화) 08:30 / 논개사당 의암사 영정각

주최·주관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2026 제1회 장수논개 전국가요제

참가자	곡명	지역
정 채 윤	무슨사랑	경기도안양
이 후 성	질풍노도	인천서구
최 정 현	자갈치아줌마	장수장계
박 주 환	가슴은알조	전주호성동
김 현 수	나비꽃	전남곡성
강 병 권	남강의꽃한송이	충북충주
정 재 윤	붓	전주
김 선 진	녹턴	대구시서구
장 수 연	정말좋았네	용인
김 회 경	덩	부산금정
원 하 나	시절인연 (듀엣)	완산
김 동 훈	가디린만큼더	완산
김 구 립	사랑님	전주덕진
천 미 애	와	전주덕진

초대가수



장수군 황보대사

최제명



미스트롯4

염유리



미스트롯4

채 윤

KBS1 녹화방송 킥사운드 LAB 밴드

[후원] 장수군, 장수농협근자부, 장수농협, 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시민조합, 장수신림조합, 장계무궁화선협, 장계WCA에이블금고



논개(論介)는 이름

호는 의암(義巖), 성은 신안 주(朱)씨

논개는 신조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훈장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때가 마침 김술년 김술월 김술일 김술시여서
모두를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면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은 개를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는 천품이 영리하고 지태가 아름다웠으며,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시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신조 11년 (1578) 8월

이 지방사람 김풍환이 논개의 자색에 탐을 내어
논개의 숙부인 주달문을 돈으로 매수하여
백치인 아들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시켜려 했다.

그러나 논개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위 주달문은 도망하자 김풍환은 논개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을 올렸으며 그 결과 박씨부인은 억울하게도
5년간 관가의 종으로 얹매이게 되었다.

이에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 하겠다고 간청하자
현감 최경회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모녀를 다 방면하였다.

신조 25년 (1592) 왜적 2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진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떠났었다.

당시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측에서는 성내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기마술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병에게 피 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신조 26년 (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은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던 최경회 부군마저
순국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을 기해 축석루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전치미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들구아질 무렵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케를 난간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깨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